

## 극동원자력(주)

### — 방사선관리 및 비파괴검사 전문기술용역업체 —

이번호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이용부문의 2개 전문분야(방사선관리와 비파괴검사)에 전문기술용역을 등록한 극동원자력(주)를 탐방하였다.

1990년 6월 대표이사 서상길 사장외에 원자력산업계의 원로와 전문 기술인력들로 구성된 이 회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산업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넓고 깨끗한 사무실에는 오랜 경륜과 고도의 전문성이 짙은 폐기와 조화되어 일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알찬 내실의 근원을 말해 주고 있었다.

이 회사에는 에너지기술사(방사선관리) 1명, 인정기술사(방사선관리) 1명, 산업응용기술사(비파괴검사) 1명과 방사선취급감독자 4명외에도 원자력기사 1급, 비파괴검사기사 1급, ASNT Level III 등이 10명이나 되는 데, 우수한 고급기술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자력이용부문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3개의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는 이 회사는 원자력사업부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과 방사능 오염 제거용역이 오늘날의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전력 수요와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유지·보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NDT사업부에서는 각종 산업설비와 구조물 등의 품질보증에 필수적인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방사선 피

폭 저감화를 위하여 기존의 방사선투과검사법(RT)을 개선한 X-ray Imaging System의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와 수·화력발전소 및 화학플랜트등의 산업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검사를 위해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와전류탐상검사법(ECT), 초음파탐상검사법(UT), 자기탐상검사법(MT), 침투탐상검사법(PT)등의 기술개발 노력이 돋보였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업체인 이 회사의 특수사업부에서는 원자력기자재와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방사선 관련 시설물등의 차폐설계, 제작, 시공, 감리업무 및 필름뱃지를 이용한 개인피폭선량 측정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TLD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1991년 4월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RI Mold Level Gauge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굴지의 제철소에 설치와 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우수한 성능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고 하며, 현재 여러 현장에 다수의 RI Level Gauge나 관련 방사선 계측기등의 설치와 교정 중에 있으며 각종 공업용 방사선 계측기의 국산화도 시도하고 있었다.

끝으로 전전한 경영이념,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의 구성, 체계화된 품질보증시스템의 운용과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이 현재의 극동원자력(주)를 만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며, 앞으로 나갈 길이 아무리 험해도 진취적 기상과 호연지기로 능히 헤쳐나갈 것이라는 사장님의 말씀과 임직원들의 배웅을 뒤로 하면서 극동원자력(주)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